

기술중심기업 금융, 희망의 돛을 올린다

우리나라 경제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기술중심기업들을 보다 집중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자금난 해결이 시급하다. 이에 기술중심기업 자금조달의 현주소는 어디인지 재조명해 봄으로써 구체적인 금융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최근 기술중심기업 육성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자금조달 문제에 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는 지난 6월 '중소기업 금융지원체계 개편방안'을 발표해 기술중심기업이 금융시장에서 좀 더 쉽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특히 창업초기에 있는 기술중심기업을 집중 지원하면서 안정기에 접어들 때까지 단계별로 정책자금을 쏟아 부을 계획이다.

정부의 이 같은 기술중심기업 자금지원 노력은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지금까지 기술중심기업들은 특성상 일반 중소기업에 비해 자금조달에 있어 어려움을 겪어왔기 때문이다. 기술중심기업은 혁신적인 기술이나 상품 및 경영기법을 바탕으로 수익을 창출한다는 점에서 일반 중소기업과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특허권, 실용신안권 등 무형자산의 비중은 높은 반면 생산설비

나 부동산 등 유형자산의 비중이 낮다.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을 통해 기업의 수익이 창출되므로 연구개발비가 많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의 성공 가능성이나 향후 시장 수요가 불확실하기 때문에 미래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도 높은 편이다. 이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탓에 기술중심기업 금융은 크게 활성화되지 못했던 것이다.

하지만 정부의 지원노력이 가시화되면서 기술중심기업의 금융 활성화는 희망적이다. 기술중심기업 육성이 우리나라 경제의 경쟁력 제고와 장기 성장기반 확충을 위한 중요한 과제임에 대해 사회적 동기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중국, 인도 등 저임금경제권이 부상하고 고령화가 진전되고 있는 최근의 상황 역시 혁신적인 경영전략을 보유한 기술중심기업 육성론에 힘을 실어준다.

성 장 단 계 별 자 금 지 원 필 요

기술중심기업의 주된 자금조달원은 성장단계별로 달라져야 한다. 기업의 초기성장 단계에는 신기술과 신상품의 연구개발에 필요한 자금뿐 아니라 개발된 상품의 생산 및 시장개척 자금이 소요된다. 그러나 대체로 물적 담보가 부족하고 경영 실적을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가 부족하므로 자금공급자 입장에서 투자 위험성이 매우 높은 시기이다. 이 단계에서는 성장가능성에 관한 투자자들의 견해가 다양하기 때문에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엔젤투자자나 벤처캐피털의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편 기술중심기업이 본격적인 성장단계에 도달하게 되면 유형자산의 비중이 점차 높아지는 동시에 매출액, 순이익 등 객관적으로 기업을 평가할 수 있는 자료가 축적되기 시작한다.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혁신에 대한 불확실성도 어느 정도 해소될 만한 시기이다. 즉 성장단계에는 은행이 자금공급을 확대하는 것이 가능해지므로 은행대출이 중요한 자금조달원이 된다.

벤 처 캐 피 털 의 활 약 주 목

1990년대 중반까지 미미한 투자규모를 유지하던 벤처캐피털은 2000년에 이르러서 GDP대비 벤처캐피털 투자 비중(0.6%)이 이스라엘, 미국, 캐나다에 이어 세계 4위에 이를 정도로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이처럼 규모면에서 빠르게 성장한 벤처캐피털이 기술중심기업에 대해 자금을 장기적으로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

서는 자금조달, 투자, 회수 등과 관련해 개선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우선 벤처캐피털은 연기금 등 장기 기관투자자의 자금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이는 창업 초기 단계의 벤처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활성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벤처캐피털리스트들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벤처캐피털회사의 조직 형태도 선진화하여 현재 낮은 수준에 머물고 있는 투자조합(벤처펀드)의 수익률을 제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한편, 중소기업청이 9월 1일부터 가동하기 시작한 '창업투자공시시스템'은 벤처캐피털 업계의 신뢰도를 높이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공시시스템은 창업투자회사의 투자활동, 경영실적, 조합결성, 운영성과, 법규위반 등을 인터넷을 통해 투자자 및 일반인에게 공시(公示)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객관적이고 시의성 있게 자료를 제공함으로써 투자활동 모니터링 및 감시기능이 강화돼 투자자와 출자자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창업투자회사의 투명성을 향상시키고 책임경영을 확립하는 효과가 있어 모럴해저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다. 이 같은 벤처캐피털 신뢰도 제고는 신규 조합결성 등 벤처투자 자금유입의 활성화를 불러올 것으로 전망된다.

은 행 의 동 반 자 역 할 기 대

기술중심기업 금융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벤처캐피털 등 고위험·고수익을 추구하는 금융기관의 육성과 더불어 금융 중개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은행부문이 기술중심기업에 대한 선별 및 자금공급 기능을 적극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 여건과 유인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은행은 기술중심기업의 발굴, 고객관리 및 전략적 협력 관계의 구축에 노하우를 갖고 있는 기술중심기업 전문 관리자를 체계적으로 양성하는 동시에 이러한 전문 관리자에게 인센티브 제공 등을 통하여 우량 중소·벤처기업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개선하는 등 역량을 강화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은행은 기업의 부실징후 포착 및 조기시정이 가능하도록 기술중심기업 대출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확충하고 필요 시 적극적인 워크아웃, 경영자문 등을 제공함으로써 단순한 신용의 공급자가 아닌 기술중심기업과의 동반자적 협력관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한국은행 금융경제연구원 <혁신중소기업 금융의 활성화 방안>